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2001년 사명자 대회 발대식

###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가 되자-

서울교회는 교회 설립 전 50일 동안 눈물과 기도로 단을 쌓으며 창립하였다. 교회는 계속하여 이 때를 기억하여 '사명자 대회'란 명칭하에 해마다 교회설립 기념주일 전 50일간,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므로 이 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의 75%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기를 기도하여 왔다. 이번 사명자 대회 표어는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가 되자"로, 주제성구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롬15:16),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송가263장)"를 주제찬송으로 정했다.

행동강령은 ①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②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한다. ③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④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등 4개의 항목이다. 사명자 대회기간 중에는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정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며 마련된 실천방안에 따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모든 성도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 하루에 두 번씩 드리는 다니엘 기도와 50일 연속기도로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여 쉬지 않고 기도 드림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한다. 또한 대신자 카드와 중보기도 요청카드를 작성하여 명단을 제출, 함께 기도하며, 대회기간 중 기도응답을 받

거나 감동을 받은 성도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금요기도회에는 주관 부서를 정하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여 활성화시킨다.

기간중 행사로는 전교인 1인 1명 이상 전도하기, 남녀 전도회별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한다. 교회학교도 자체 초창간치 및 이삭줍기운동을 전개하여 잃은 양 찾기에 힘쓰며 각 교구 및 다락방에서는 배가 운동을 전개한다. 또 70인 전도대에 각 전도회를 주력참여 부서로 정하여 전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4시간 연속기도 릴레이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7대 기도제목을 갖고 주어진 성경을 읽으면서 진행한다.

말씀과 기도로 전도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2001년 사명자 대회가 되게 하자. 전 교인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 ▶ 교구별 야외 수련회 계획 잡히다

지난 바자회때 수고한 일꾼들의 위로회 겸 교구식구들의 단합을 위한 교구별 야외 수련회 일정이 수립되었다. 먼저 1,2 교구는 오는 10월19일(금) 오전6시에 출발하여 동해안 정동진 해맞이 마을을 중심으로하여 소금강을 거쳐 자매부대 방문을 하는 하루 코스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감상하고 교구식구들의 단합과 일치를 모색할 예정이다. 5,6,7,8 교구는 10월19일(금) 강원도 치악산 관광농원으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교구식구들의 단합과 교제와 수련회를 갖는다.

3,4 교구와 9 10 11 12 교구도 야외의 좋은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다.

### ▶ 새벽기도회 분당에서

- 8일(월) 부터 -

새벽기도회 참여자 수가 급증하여 1층 웨스트민스터 홀이 비좁아 내일(8일)부터 분당(2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넓은 자리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한다.

### ▶ 성경암송대회

성경암송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28일(주) 개최되는 이번 성경암송대회의 범위는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장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 주부대학 특강안내 - '맑은 물 만들기 운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여수분홀(503호)에서 열리는 주부대학은 금주 특강으로 '맑은 물 만들기 운동'을 주제로 기독교 물 사랑 운동연합의 우도화 전도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물 부족 현상이 심해져 주부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 이번 강연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지키는 지식을 얻기 바란다.

주부대학은 1부 특강 2부 특활반( 영어회화, 컴퓨터, 음악감상, 꽃꽂이)을 운영중이다.

### ▶ 필그림 예술단 창작극 경연대회 참가한다

10월20일(토) 오후3시 풍성교회(개포동)에서 열리는 창작극 경연대회에 서울교회의 필그림 예술단이 참여하여 '기도'를 제목으로 한 창작극으로 경연대회에 선전에 참가한다. 결선은 3팀이 27일(토) 우리 교회당에서 갖는다.

#### 10월 행사 계획

- 10. 4 (목) · 강남노회「영동 시찰회」
- 10. 7 (주) · 사명자 대회 발대식 10.7~11.25 (50일간)  
· 청년부 헌신예배  
· 교육 위원회
- 10.14 (주) · 전도 위원회
- 10.17 (수) · 학습, 세례식
- 10.19 (금) · 교회학교 교사 연합기도회
- 10.20 (토) · 제12회 어린이 가을 종합 발표회(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주최)  
-서울교회, -참석범위: 유치, 유년, 초등
- 10.21 (주) · 교구 위원회
- 10.25 (목) · 「한국장로교 교회 정체성 회복운동 위원회」-서울교회
- 10.27 (토) · 광나루 문학「창작극 발표회」-서울교회
- 10.28 (주) · 성경암송대회  
· 새가족 환영회, 찬양 발표회

#### 이번주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개역개정판막 10:29-30)

"I tell you the truth," Jesus replied, "no one who has left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e and the gospel will fail to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in this present age (homes, brothers, sisters, mothers, children and fields—and with them, persecutions)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NIV Mk 10:29-30)

이시야서 강해

# 이스라엘을 위로하심

(이사야 51:1 ~ 8)



이종운 목사

본 장은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되며 거의 비슷한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 절마다 '시므에라이(너희는 들을지어다)'(1, 7절), '하크시브에라이(내게 주의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4절).

### 1. 내 근원을 생각해 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1절).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을 세우려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깨어낸 채석장 자체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석공은 거기서 캐낸 돌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을 파낸 채석장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돌을 파낸 채석장은 그 꼴이 아주 우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잘 다듬어진 사람 같고, 아름다운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본래 우리의 고향은 돌을 파낸 채석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되 하나님 홀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위로를 받고 싶다면 너희의 고향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고향을 기억한다면 역을 하거나 원통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자신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돌 가운데 뽑아내어 잘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견고해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만 사라는 흙을 파낸 구덩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근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2절).

이스라엘은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 의해 탄생된 후손들입니다(히 11:12).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진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셨습니다. 사라는 죽은 자와 망불했으나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서 기쁨함과 즐거위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3절).

'시온을 위로하여는 완료형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일을 과거사로 말한 것은 미래사를 확실하게 보고 말씀한 예언적 문투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본래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억하여 오늘을 감사해야 합니다.

### 2.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위로가 선포된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4절)는 '내게 들을지어다'(1절) 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으로 꼭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공의는 참종교 진리, 곧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 복음은 만민의 빛이 됩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안에 의지하리라"(5절).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하기까지 약 150년의 세월이 흐르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또 수 백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가 천 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구원이 가까워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심판은 복음 전파로 이루어질 영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선포한 후에 메시아가 재림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섬들, 많은 나라들은 주님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알바니아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두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 크던 작던 복음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민 이스라엘 보다 이방인에게 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이 새로워질 것이고(벧후 3:10-13, 계 21:1)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계 19:11-21).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6절).

그가 이루실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가 이루실 구원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상수를 따라야지 변수를 따라서는 안됩니다.

### 3. 뱀방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7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뿔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행 12:20-23). "옷 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좀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8절).

인간은 옷과 양털처럼 좀이나 벌레에게 먹혀 없어지지 만(사 50:9, 51:6),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6절). 우리에게는 영원을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비방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받는 사람이 나중에 잘못 될 수 있고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이 나중에 투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역사가 역사로서 기록되려면 적어도 3백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번 정한 일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끝까지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의 공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받는 죄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며 ...

이것이 궁금합니다.

태신자란?

태신자란 "작정된 전도 대상자"라는 뜻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10달 후에 출산하듯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 출산(결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태신자 전도 운동"이란 주변의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로 영적 자녀를 잉태시키고 특별히 이번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 집중적인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작정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등록케 한 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게하는 전도운동이다.

태신자 작정 대상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 잃은양(민다가 낙심한 친구들) 등이다. 태신자를 작정하여 카드에 기입하여 제출용은 사무국이나 현금함을 통해 제출하고 보관용은 자신의 성경책 앞면에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E-mail로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1:1 접촉과 사랑으로 섬긴다. 특별히 '이슬비 사랑의 편지'를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작정카드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전달하거나, 전도자가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교

회에서 전도용 카드를 배부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이슬비 사랑의 편지란?

이슬비 사랑의 편지란 신상이 확보된 전도대상자에게 바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대상자들의 형편과 처지, 연령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의 황폐해진 마음 밭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 밭으로 만드는 편지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어 있는 잔잔한 글들로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밭을 옥도로 만들어준다.

편지를 받아 읽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 1회씩 발송하는데 적어도 2-3주 정도 후에는 편지의 수신 여부와 느낌을 조심스럽게 물어 마음 밭의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다니엘 기도 운동이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경건한 유대 청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기도특징은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사적인 기도, 시간을 정한 기도였다. 그 중에 특별히 자기의 집 뒷방에서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뜨겁게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움직이게 하여 사자의 입을 막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 다니엘 기도운동이란 우리도 영적 싸움인 전도의 일을 앞두고 시간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탄의 계계를 결박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다.

50일 연속 기도란?

사명자 대회기간중인 50일간 매일 24시간 동안 교회의 정해진 기도장소에 전교인 각각 배정된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50일 연속 기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24시간동안 성도들의 기도가 이어져 계속되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끊이지 않아 기도의 응답을 받게 있다.

▶ 사명자대회 주요 행사 일정

행사명	일시	주관	비고
연속기도회	매일 24시간	전 성도	
다니엘 기도	매일 오전10시, 오후10시	전성도	10시 10시 3분
태신자 명단 제출	10.7~10.28	전 성도	매주 1, 2, 3부 예배시 현금제출, 사무국제출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9시	진행분과 (주력부대)	1층 웨스트민스터 홀
태신자 초청의 날	11. 28 1, 2, 3부 예배후	진행분과	
전도	노방, 축호전도	10.7~11.25	남여전도회
	거주지 및 친지 전도	10.7~11.25	전성도

▶ 사명자대회 중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0.12	(당 회)	빌립, 도르가	새가족부, 장년1,2부	가브리엘
10.19	1, 2, 3, 교구	안드레, 루디아	대학, 청년부	할렐루야
10.26	4, 5, 6, 교구	베드로, 뱌비	사랑, 장년3,4,5부	임마누엘
11. 2	전 교구	바울, 마리아	(권사회)	호산나
11. 9	전 교구	엘리아, 에스더	유아부, 유치부, 새가정부	시온
11.16	7, 8, 9, 교구	모세, 한나	유년부, 초등부	베들레헴
11.23	10, 11, 12, 교구	아브라함, 사라	중등부, 고등부	(스테반회)

▶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노방전도 주관부서

월 일	특별 새벽기도회( 매일 05:00~06:00)	한티 공원 및 대치전철역 전도 (14:00~16:00)
11.12(월)	1, 2교구, 할렐루야, 유년부, 초등부, 빌립, 진행분과	1교구
11.13(화)	3, 4교구, 임마누엘, 중등부, 도르가, 홍보분과	2교구
11.14(수)	5, 6교구, 베들레헴, 고등부, 안드레, 전도분과	3교구
11.15(목)	7, 8교구, 호산나, 대학부, 루디아, 기도분과	4교구
11.16(금)	9, 10교구, 시온, 청년부, 사랑부, 베드로, 교육분과	5교구
11.17(토)	11, 12 교구, 가브리엘, 유아부, 유치부, 뱌비, 안내분과	6교구
11.18(주)	1, 2교구, 할렐루야, 장년부, 바울, 재정부	주일예배
11.19(월)	3, 4교구, 은빛, 소망부, 마리아, 진행분과	7교구
11.20(화)	5, 6교구, 임마누엘, 새가족부, 새가정부, 엘리아, 홍보부	8교구
11.21(수)	7, 8교구, 베들레헴, 유년부, 초등부, 에스더, 전도분과	9교구
11.22(목)	9, 10교구, 호산나, 중등부, 모세, 기도분과	10교구
11.23(금)	11, 12교구, 시온, 고등부, 한나, 아브라함, 교육분과	11교구
11.24(토)	전교인 총동원, 연합찬양대	12교구

아침해가 돋을 때

윤속의 집사(6교구)

새벽기도회에 가는 길이면 주변은 온통 어둠에 젖어 있다가 돌아오는 길은 358장 <아침해가 돋을 때>와 같이 "만물 신선"한 새 세계의 열림이다. 은혜의 단비까지 촉촉이 받고 대치동에서 화곡동 집까지 달리는 88 올림픽 도로 위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감사와 감탄의 연속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어느 것 하나 신비하고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새벽기도 직후 아침해가 돋을 때 바라보는 반짝이는 햇살과 평화롭게 흐르는 강물, 가볍게 흔들리는 가로수 잎새들, 파란 하늘의 구름과 북한산 숲 사이사이에서 있는 바위들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고 하모니가 훌륭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져 내 마음은 그야말로 환희의 폭죽이 터지는 듯하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통 어둠의 세상이더니 아침해가 돋는 순간부터 이렇게 밝고 환한 새 세상이 열린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듯이, 어둠에 속할 때는 어둠이더니 빛이 비추자 빛에 속하는 걸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 어두운 곳마다 은혜의 빛을 비취주시되, 이 가을에는 저 북녘 땅에도 사랑의 빛을 비취주시고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편지 왔어요~



# 보고 싶은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 정성국 전도사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한국을 떠나 미국 유학 길에 오른 지도 벌써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교회가 세성전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 동안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허락하신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학업과 새로운 환경의 도전들을 놓고 질문과 고민들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딸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 7개월 짜리 아빠의 즐거운 신앙고백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서울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진 학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가 가

르치는 개혁교회의 복음주의 신학과 청교도적인 신앙을 전수 받기 위해 모인 30여개교의 젊은이들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하는 세상에 증거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제게는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이요 또한 평생의 목회 사역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면서 오히려 제 신앙과 삶의 중요한 초석들은 이미 서울교회에서 놓여졌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울교회의 대학부와 청년부가 아직 그 형태를 잡기도 전부터 신앙과 인생의 선배로 제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서울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은 아빠 엄마가 되어 새가정부에서나 볼 수 있을 나의 오랜 신앙의 동지들,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함께 교회를 걱정하며 비전을 나누던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후배들, 그리고 떠나오기 전 1년여 동안 기쁨보다 아픔을 더 많이 나누어야 했던 사랑부의 아이들, 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더해지면서 새삼 깨달아 졌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리고 빛진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울교회와 이종운 목사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늘 힘든 길을 자청하여 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를 도전하는 길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힘든 길을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든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한 신앙인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짧은 인사의 글을 가뭇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울교회에서 주최한 교회 갱신연구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벌써 십 년을 맞이하여 20학기가 개강되었습니다.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국내외의 목회자들이 교회갱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서를 연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 할 것인가? 좌표를 제시하는 귀한 모임으로 국내외의 명실 상부한 한국교회의 갱신운동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도 봄 학기에 주변 목사님의 소개로 처음 갱신연구원에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서울에만도 이곳 저곳에서 실시하는 갖가지 많은 세미나가 있으나 본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만큼 알찬 프로그램과 교회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기 드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명쾌한 강해와 또한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보며, 바르게 판단하여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해 주도록 준비된 강사님들의 특강은 참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는 귀중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 회장이신 이종운 목사님의 탁월하신 지도아래 교역자들과 온 교우들이 교회갱신 연구를 위하여 정성을 모아 혼연일치 된 마음으로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다 못해 자신이 더욱 작아짐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도전을 받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동안 나는 수 십 년 동안 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 미래의 청소년교육에만 정열을 쏟았지 사회 교육과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한 참신하고 좋은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지금의 작은 나를 발견하고 더욱

### 교회 갱신 연구원을 통한 나의 성장

#### 김무기 목사 (교회 갱신연구원 총동문회 총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도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 오늘이 현장에 불러 주셨으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받으며, 매 주 월요일을 기다려 21세기의 새로운 목회 방향을 설계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언제 보아도 어느 한 구석 빈틈이 없고, 하나같이 웃음을 잃지 않으며 맘을 흘리는 모든 봉사자들의 모습은 환회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섬기려는 진실한 하나님나라 백성의 참신한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변화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앞에 서서 모범 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갱신 연구원의 동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셨으며 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본 세미나를 통하여 내가 먼저 나를 만났으니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행하여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심에 의미 함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모범이 되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인 저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데 이 세미나를 통하여 남을 보고 나를 성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미래를 먼저 보며,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앞서가는 모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2일(금) 오후 6시 연세 찬양 선교의 밤 행사에서 축도순서를 맡는다

### <정정>

#### 사명자대회 분과 추가

안내분과: 이번생 송연권 이관규 양인수 이계홍

재정분과: 최학인 김금준 홍성주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김관홍 집사 황인숙 권사 -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가정: 조철기 김영란 집사가정 배 기증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1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